

2019년 달라지는 카타르의 세금정책

두바이지사



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부가세 면제

- 카타르 정부는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(VAT)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카타르 국민과 거주민들의 소득에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.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은 2018년부터 석유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5%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카타르는 VAT 도입을 보류한 것이다. 이는 카타르의 생활비를 낮추어 카타르가 외국인이 투자하고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.
- 카타르는 주요 경제 부문에 대해 추가 면세를 허용할 것이며 주식 및 이익에 대한 투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지만 2019년부터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선 선택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담배와 에너지음료에는 100% 세금 부과

- 선택적 세금은 특정 건강 피해상품(health damaging

goods)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고안됐으며 이 법에 따르면 담배와 에너지음료는 100%의 세금이 부과되며, 설탕음료에 대한 세금도 50% 부과될 예정이다.

-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카타르 당국의 이번 세금 인상으로 12개/1팩으로 구성된 맥주의 현지가격은 78달러(약 8만 8,000원)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현지 거주자들은 이번 세금인상을 죄약세(Sin Tax)라 부르고 있다. 카타르 정부는 세금부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학교나 병원 등 공공서비스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.
- 아랍에미리트(UAE)에서 처음 도입된 죄약세(Sin Tax)가 카타르 등 중동 인근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비만, 당뇨병 등의 건강문제를 최우선으로 감안하는 중동국가의 보건정책에 맞추어 한국 농식품도 설탕, 소금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최소화하는 등 현지국가 정책에 맞추어 상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.